



▲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집콕 영상' 중 캡처. ▶ '의료진 응원메시지' 영상 캡처.



# '코로나 싹쓰리' 영상제 눈길 끄네

'지구는 우리가 지킨다. 깨끗한 세상을 물려줍시다.'

코로나19시대 청소년들이 제작한 특별한 영상제가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의 관심이 뜨겁다.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코로나19 싹쓰리 영상제'가 그것.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맘껏 발산할 수 있는 장으로 매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진행해 왔다. 올해 청소년어울림마당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활동이 어려워지자 청소년수련관은 '코로나19 싹쓰리영상제'를 마련했다.

'코로나 싹쓰리 영상제'는 코로나를 청소년들의 열정과 끼로 싹쓸어버린다는

##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위드코로나 프로젝트

### 청소년 13개 팀 참여 '집콕 영상' 등 제작

의미를 담았다. 지난 8월 3일부터 20일까지 총 13개 팀이 싹쓰리(코로나19 예방 수칙캠페인), 싹투(의료진 응원 메시지), 싹쓰리(나만의 집콕 영상) 분야에 참여해 직접 제작한 영상을 선보였다.

'코로나 예방수칙 영상'은 코로나시대를 슬기롭게 동아리생활을 하기위한 청소년들의 실천 영상을 인사법, 손씻기, 사람간 간격 유지 등 1분 30초 분량의 쿠키영상으로 제작했다.

'의료진 응원 메시지 영상'에는 일상

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헌장 모습과 함께 청소년들이 포스트잇에 손글씨로 정성껏 적은 응원과 감사 메시지를 칠판에 붙이는 '덕분에' 영상으로 훈훈함을 전한다.

"집에서 뭐하니"란 물음으로 시작되는 '나만의 집콕 영상'은 집에 머물러 있는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나만의 DIY 명화 색칠하기, 보석삽자수, 간단한 마들렌 만들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법 등 다양한 형태의 집콕 활동을 영상에

담았다.

무엇보다 영상제대인 요즘 청소년들의 특목 튀는 아이디어와 발랄함이 돋보인다. 시상식은 지난달 29일 각 분야별로 3개 팀씩 총 9개 팀을 선정해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광산구청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광주지역에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조치 등이 내려지며 청소년들 또한 우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작품들을 모아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응원하고 시민들과 또래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을 널리 알리는데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연수 기자

## 대가·조건 없이 물품·정보 나눠요

### 불교계 시민단체 온라인 마당 '무나페(Munafe)'

무나페는 '무소유 나눔 페스타'의 줄임말이다. 불교계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무나페(http://munafe.net/)'가 1일부터 온라인으로 문 열었다.

무나페에서는 이웃과 나누고 싶은 물품을 올리고, 필요로 한 물건이 있다면 누구나 요청할 수 있다.

물품을 나누고 구하는 데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아내바다 운동'과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중고 물품거래시장은 돈이 오간다는 점에서 무나페와 성격이 다르다.

무나페 추진위원회 측은 "무나페의 기본 철학은 무소유"라며 "제대로 사는 삶이란 '풍부하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있다'라

는 범정스님의 말씀과 결이 같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무나페를 통해서 물품을 넘어 재능과 소모임, 정보도 나눌 수 있다.

추진위는 당초 무나페를 오프라인에서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함에 따라 온라인 무대로 전환했다.

무나페에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총동문화,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광미디어,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민주노조,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성산안마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 비대면 사회 속 문화 가치와 역할

### 문체부 '문화는 위로입니다' 광고 영상 호응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작한 '문화는 위로입니다' 영상 광고가 누리꾼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비대면 사회 속 문화와 가치와 역할을 담은 이번 영상은 봉준호 감독, 송강호 배우 등 영화 '기생충'의 출연진 모습, 방탄소년단(BTS), 안숙선 명장과 국립무용단, 국립현대무용단 공연 등 신인류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의 기존 영상을 활용해 제작했다.

지난달 12일 문체부 대표 SNS에 공개된 이 영상은 1일 현재 유튜브 조회 수 110만 회, 트위터 노출 수 46만 회를 돌파

하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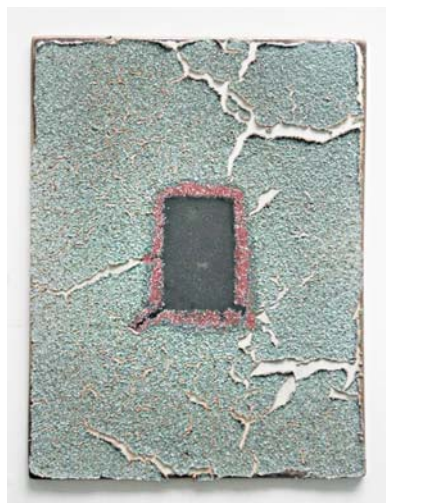
특히 문체부 박양우 장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직접 참여했다. 박양우 장관의 목소리를 녹음한 영상 또한 문체부 대표 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한재혁 대변인은 "문화는 위로입니다" 영상 광고에 호응해준 누리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박양우 장관의 목소리를 녹음한 영상을 통해 시각장애인에게도 비대면 시대의 따뜻한 연결사회를 위한 문화의 중요성이 전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문체부가 제작한 '문화는 위로입니다' 영상 광고. /문화체육관광부 유튜브 캡처



'염원'

## 자연의 향수 작품 안에 구현

### G&J광주·전남 갤러리 서회진 '염원' 전

#### 흙과 돌, 손의 모양 등 실험 거치는 형식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G&J 광주·전남 갤러리에서 2일부터 8일까지 도예가 서회진 작가의 개인전이 열린다.

작가는 '염원'을 주제로 도판 30여점을 선보인다. 강가의 자갈과 막돌들을 주제로 용기 형태가 아닌 도판에 흙과 돌, 손의 모양 등 실험을 거치는 듯한 형식들이 주를 이룬다.

작가는 도예의 일반적 고정관념인 용기성에서 벗어나 회화적 장르와 설치 작업이 병행된 전시 컨셉을 통해 또 다른 장르의 형식을 보여주고자 시도하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들은 크게 3개의 주제로 나뉜다. 돌, 흙, 손이 그 모티브로서 작가의 의도에 의해 필연적으로 배치되거나 혹은 우연에 의해 만들어지는 형상을 통

해 작품화하는 실험이다.

초벌된 도판에 유약을 바르고 흔히 강가에서 볼 수 있는 자갈이나 막돌을 화면에 적절히 배치해 구현된 작품들이 눈길을 끈다.

전시 주제 '염원'은 작가가 나고 자란 시골 고향의 흙, 물, 산, 돌 등의 자연에 대한 향수를 작품 안에서 구현해 내는 소박한 염원이기도 하다.

작가는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도자기 기술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경기도 하남시에 작업실 겸미도예공방을 운영하며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하남시 도예가협회 회장, 하남미술협회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흙술이 좋아요"...외식업계 울상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전남농협 협소어 육질개선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는 위로입니다' 구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는 위로입니다' 구제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6445-937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5431-4006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666-5888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  
 동부권본부 : T. 061-743-4200 / F. 743-4202